

글로벌 동향 - 미국 시애틀의 스타트업 현장: 조용한 커피 타운 실리콘 밸리의 다음 정거장을 꿈꾸다

글 : 김형주 (hjkim@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비오는 날씨와 스타벅스 커피의 고향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시애틀은 최근 테크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변화하고 있다. 시애틀이 위치한 워싱턴 주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 활동이 활발한 주로 손꼽히며, Zillow과 PopCap Games 등 시애틀 기반의 성공적인 스타트업들이 자리 잡는 한편, Tableau 등 실리콘 밸리에서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시애틀로 이전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카우프만 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창업 활동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애틀 지역의 창업 활동은 증가하고 있다.

사실 시애틀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테크 스타트업 활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일찍이 1910년대 Boeing이 입지하면서 항공기 제조업과

관련된 기술 기반이 형성되고 1990년대 Microsoft가 성장하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가 발전했지만, 테크 스타트업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소규모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 2000년대 초반까지 시애틀 지역은 Microsoft와 Amazon이라는 두 대기업과 소규모 초기 스타트업들의 양극단만 존재했으며, 이들 초기 스타트업들은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들에 비해 대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이처럼 스타트업의 성공 전략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시애틀 스타트업들은 활기를 잃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시애틀 스타트업 생태계는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실리콘 밸리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최근 시애틀에 엔지니어링 오피

그림 1: South Lake Union 전경



스를 열면서 시애틀 스타트업들이 exit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했고,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Google을 시작으로 Facebook, Apple, Twitter, Salesforce, eBay, Dropbox, Uber, SpaceX, Taser, Palantir, Groupon, Hulu, Electronic Arts, Yahoo!, Pivotal Labs 등의 엔지니어링 오피스가 시애틀에 입지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Alibaba도 미국 내 거점으로 시애틀을 선택했다. 이 기업들의 새로운 엔지니어링 오피스는 수천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할 계획이며, 일부는 시애틀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본사가 있는 실리콘 벨리로 이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시작한 몇몇 지역 스타트업들이 중견 규모의 테크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시애틀 스타트업 생태계에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Microsoft의 스핀오프로 시작한 Expedia나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 Zillow 등은 주식 시장에 상장되었고, Electronic Arts에 인수된 PopCap Games, EMC에 인수된 Isilon, Oracle에 인수된 Blukai 등은 여전히 시애틀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편, 과거 시애틀 지역의 스타트업 투자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소규모 엔젤 투자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Madrona Venture Group과 Maveron 등 벤처캐피털과 Founder's Co-op과 Alliance of Angels 등 엔젤들의 공동 투자 펀드, 그리고 Techstars와 Microsoft Ventures 등 엑셀러레이터 등 보다 다양한 형태와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벤처캐피털들은 실리콘 벨리 등 외부 투자 유치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시애틀의 South Lake Union 지구는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이다. 원래 물류창고만 있었던 이 지역은 Amazon이 2010년 본사를 비롯한 주요 오피스를 입지시키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기존의 스타트업들과 벤처투자회사들이 위치한 다운타운에 인접해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고 있는 University of Washington 캠퍼스와도 가깝다. South Lake Union은 현재 시애틀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이며, Microsoft 공동 창업자인 Paul Allen이 설립한 Vulcan Inc. 등이 이 지역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Microsoft Ventures가 여기에 오피스를 열고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Facebook은 약 2,000명의 직원을 수용할 엔지니어링 센터를 짓고 있다. 특히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 Battelle, Seattle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Seattle Children's Hospital, Rosetta, University of Washington Medicine 등 생명과학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WeWork와 같은 네트워킹 및 공동 작업 공간도 입지해 있다.

시애틀의 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University of Washington은 실리콘 벨리에서 스탠포드 대학만큼이나 중요하다. University of Washington 대학은 시애틀 지역의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들에

게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한편 공동 연구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과학과는 최근 지역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규모가 커지고 지명도도 상승하여 미국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 컴퓨터과학과 학생 중 80% 정도가 졸업 후에도 워싱턴주에서 일하며, 약 30%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직장을 구한다고 한다.¹⁾ 최근에는 스타트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에 Startup Hall을 만들었으며, 엑셀러레이터 Techstars와 초기 단계 벤처 펀드인 Founders' Co-op, 그리고 창업교육 전문기관 Up Global과 파트너십을 통해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애틀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City of Seattle도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 시장 McGinn은 2013년 Startup Seattle initiative를 발표하여 시애틀 테크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현 시장인 Murray가 그 뒤를 이어 스타트업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 밑에 Startup Seattle이라는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하고 있다. 특히 Code.org와 Startup Weekend 같은 지역 조직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접하도록 연결하고

1) Nick Wingfield(2012. July 7), "University of Washington, a Northwest pipeline to Silicon Valley", The New York Times

그림 2: Lake Union Park 주변 모습



있으며, University of Washington 캠퍼스 주변을 중심으로 초기 테크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²⁾

시애틀 테크 스타트업 생태계는 실리콘 밸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다. 시애틀은 실리콘 밸리의 테크 대기업들이 새로운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설립하는 장소이며,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거비와 교통 체증을 피해 실리콘 밸리의 창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이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애틀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실리콘 밸

리에 종속되어 있으며 독자적으로 성장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테크 대기업들의 엔지니어링 오피스들이 입지하면서 시애틀 스타트업들은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그러나 Boeing의 항공기 제조업부터 시작된 오랜 기술적 기반과 풍부한 엔지니어 인력을 보유한 시애틀과 실리콘 밸리와의 밀접한 관계는 시애틀 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제공하기도 한다. 향후 몇 년간 시애틀이 실리콘 밸리의 다음 정거장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2) <http://startupseattle.com>